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개관

### 총 사업비 172억원 투입 부지면적 9660㎡ 조성 전국 최초 발달장애 성인 전용 평생학습관 설립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지난 2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 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성산면 금강공원 내 총 사

업비 17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660㎡, 연면적 4,679㎡로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회복 및 재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총 3층 규모로 건립된 체육관의 1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진입(樓下進入) 방식으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편리성과 개방성을 확보했다.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강당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운동실 등이 있어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동선 확보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설립된 발달장애

성인 전용 평생학습관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차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조성됐으며, 교육 단일 시 기초 생활능력이 퇴화되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는 군산시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규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체육관 및 평생학습관이 개관돼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운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장애인 대외유치와 발달장애 성인의 지속적인 평생학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장애인 경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익산시가 장애인 민원서류 발급을 돕기 위해 시청 앞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전용으로 교체·설치해 25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의 키에 맞춰 화면이 자동 변형되며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및 음성지원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시청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발급기까지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를 가진 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신규설치를 포함하여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68,181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창구민원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북돋아 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7대 군산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 제2회 추경예산, 1회 추경예산 9994억5500만원 보다 2.11% 증액

군산시의회가 제20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원식을 가졌다.  
지난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9,994억5500만원 보다 210억7500만원(2.11%)이 증액된 1조 205억3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765억 8400만원보다 200억 7500만원(2.3%)이 증액된 8,96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228억 7100만원보다 10억원(0.8%)이 증액된 1,238억 7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번 회기는 군산시장 상권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군산시의회가 제20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원식을 가졌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이 박 의장은 “지난 4년간 군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의원 여러분과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익산 R&D기관 협의체 회의

###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발굴 기대

익산시가 산업부문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익산시 소재 R&D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키오프(첫 회의) 성격의 이번 회의는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기획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 관심사업 중심의 참여 기관별 제안 설명과 R&D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관별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내 일반도시와 같이 R&D기간 협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익산시가 문제개선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타 R&D 기관 및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진행 사업과 보유 기술력 및 연구장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연구기관으로 Eco융합첨단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스마트융합기술센터(호남권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등), 전북디자인센터, 익산패션주얼리공공연구개발센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I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원, 익산창업보육센터 등과 원광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소재, 높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전국적 강점을 보유한 익산형 사업발굴을 위해 R&D기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과 나아가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후속 사업(post-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등 굵직한 미래 성장동력사업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 실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1일 서익농협에서 시설원예 농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산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수



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하고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지역 생산 소형양배추 일본으로 매주 10톤씩 수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지역에서 생산된 소형양배추를 일본으로 매주 10톤씩 수출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수출되는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 무게의 2분의 1정도인 1kg 내외의 소형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하면서 당도가 높은 생식용이며 일본 현지 시식회를 통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품종이다.  
지난 22일 군산에서 출발한 양배추는 25일 일본 동경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며, 시에서는 국내에서도 짧은 층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소비성향 변화에 맞게 소형양배추를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부터 유통회사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10여 차례 진행해 왔다”며 “올해는 양배추 재배단지 8ha에서 매주 10여 톤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지만 내년에는 30ha에서 매주 40여 톤까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양배추 외에 절임배추, 상추, 케일, 시금치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해 군산의 우수한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